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보호소를 개소하며

허주형 / 인천광역시수의사회장

2006년 봄 인천지역에는 그야말로 개지옥이 라고 불리는 장수동, 산곡동 사건이 있었다. 관공서와 개 사육업자 사이에서 아무런 저항권도 없이 약 30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죽어 갔으며, 약 200여 마리의 정도의 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실정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들을 구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관공서, 개 사육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3자의 분쟁으로 확대되어갔다.

하지만 수의사회의 개입으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들도 동

물사랑실천협회의 포천보호소로 이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 지역은 동물학대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인천수의사회에서는 2006년 정기총회에서 야생동물과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의 필요성을 느껴 동물보호소 설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실행이사회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전국의 동물보호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직접 다른 지역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도 벌였다.

그리고 2006년 6월 실행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35-8번지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7월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실행이사회에서 제출된 자료로 토대로 검토하여 동물보호소설치장소와 설치비용 및 동물보호소운영위원회 설치를 가결하였다.

동물보호소가 설치될 장소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뒤편에 있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축사와 농지로 되어 있었다.

올바른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였다.

대한수의사회의 후원과 우리 자본력으로 8월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하였다.

축사내부를 다시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고, 축사외부는 불도저를 동원하여 땅고르기 작업을 하였으며 농지 바깥으로 유기동물의 탈출을 막기 위하여 외부 펜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외부에 소음을 적기 하기 위하여 외부 펜서 주위에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축사에서 약 8m 정도 다시 외부 펜서를 설치하여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하여 완전 자유 방사 식으로 하였다.

또한 겨울철에 동물들이 놀 수 있는 주위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게끔 설치하였으며 톱밥을 깔아 동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호소 내부에 약 500평정도의 농경지를 수의사와 동물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동물들과 같이 어울리게끔 하였으며, 동물보호소에서 배출되는 변으로 하여금 퇴비 처리를 하게끔 하였다.

보호소의 운영은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에서 결





정하여 동물보호소 관리부를 통해 집행 결정되어 처리 하게끔 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하였다.

또한 기존의 타 동물보호소와는 달리 안락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날짜순으로 동물을 안락사하는 비극적인 죽음의 번호를 탈피할 예정이다.

또한 다년간 경비견 훈련학교장으로 역임하였던 수의사선생님으로 하여금 동물을 훈련시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동물의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부활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내 전 병원을 제1차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모든 동물은 전 병원에서 3일간 보호 관리한 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소로 이송할 예정이며 동물을 잃어버린 일반 시민의 경우 집 가까운 병원에서 자기 동물을 찾아본 후 발견되지 않을 시 3일 후 동물보호소에 등록하면 동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드디어 보호소 개소일을 11월 18일로 결정하였으며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개소 준비를 위하여 행사진행, 대외섭외, 재정 등 여러분야로 나누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유니폼과 기념품등을 제작하였으며 운영위원들은 당일 유니폼을 착용하여 행사진행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나눔회 학생들도 행사당일 직접 봉사활동을 해주기로 연락이 왔다.

11월 18일 !!!

행사당일 아침부터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행사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생들도 도착하여 개소 준비는 점점 더 활기를 더해갔다.

인천지하철 굴현역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여 참가자를 위하여 안내를 시작하였다.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님과 강호사무총장님, 경기도수의사회 백충기회장님과 임원님들, 강원도수의사회 김동훈회장님, 멀리 울산서 오신 울산수의사회 강병재사무이사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양일석학장님,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강종일회장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위원장님,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임경중지원장님, 인천가축위생시험소 황현순소장님과 직원선생님, 우리 회 전직회장님과 고문님 및 회원님 등 많은 내부 인사분들께서 참석하였다.

외부 인사로는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의장님, 일본 Human and Animal Bond 회장이신 Dr. Gen Kato 회장님,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님과 보호단체분, 한국조류협회관계자분, 인천광역시청 김옥기축정팀장님과 직원선생님, 부평구청 지역경제과 선생님을 비롯한 각 구청 관련 선생님, 해마루 김윤찬본부장님, 아쿠아플러스 이용환대표님, PnV 심훈섭사장님, 한국바이엘 볼프강 밀러사장님과 나성식이사님, 조기제 금석건설대표 이사님등 기타 많은 업체에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보호소 인근 주위시민들도 참석하여 보호소에 기금을 직접 기부도 하였다.

정영채 회장님과 박창규의장님에게 명예동물구조요원을 상징하는 단복 증정식을 겸하였으며,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님과 정영채회장님께서 직접 유기동물입사식을 시연하였다.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정의석원장님께서서는 후원금 50만원을 기부하여 보호소운영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더 심어 주었다.

또한 많은 언론매체도 참가하여 열띤 취재열기도 벌였으며, 인천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 중앙지, KBS 11시저녁 뉴스, MBC김 미화의 라디오세상, 경인방송의 라디오플라이 등에도 소개되었다.



※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407-910023-27704, 하나은행, 인천수의사회동물보호소